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업주부의 대응양식에 관한 연구

김 선 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 연구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발전시킨 대응양식의 종류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 직업정체성이 중요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리고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취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적인 가정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업주부는 자기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전 세계와의 단절, 가정 내 역할 위주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요구, 남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의존으로 인한 자율성의 부재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의 영향으로 전업주부는 끊임없이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는 행위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주체적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자기 해석 및 대응양식을 파악하고자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업주부의 정체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서 이 연구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진 30, 40대 중산층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11명의 제보자를 선정하고, 비구조적 질문을 위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업주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실제 경험'은 당사자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며 해 놓은 것도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은 사회적 존재감의 결여와 인정받지 못한 개인적 업적에 관한 것으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건강한 정체성유지에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전업주부들의 이야기 속에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동화(同化)와 수용(收容)의 과정을 밟아 총체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행위성이 드러난다. 그 결과 전업주부가 발전시킨 대응양식으로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 건강관리와 외모관리에 대한 몰두, 전업주부에 대한 정당화, 취업에 대한 희망과 시도, 가정 밖 모임에 참여하기가 있다. 연구결과 전업주부 정체성은 '가정 내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과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아 찾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업주부가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양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응양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각 대응양식은 전업주부를 둘러싼 환경의 한계 안에서 나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